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 확산

檢·辯 조직적 반발... 법조 3륜 대충돌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不信 촉발 감정싸움에 사법개혁 뒷걸음 우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 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찰과 변호사 지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법조 3륜'간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수위는 11일 부산고법을 시작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졌고, 13일에는 광주고법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를 사람에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변호사의 역할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했다.

변형은 21일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사퇴까지 촉구했다. 외견상 사법부와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이다. 검찰은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장이 각 법원을 초도 순시할 때 했던 후시 내용을 문제 삼아 검찰과 변호사 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를 촉구한 것은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불신 팽배' 법조3륜 정면충돌=최근 일련의 사태는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여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사법부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환 조사를 받자 충격에 빠지면서 검찰이 그동안 일선 법원에 대해 갖고 있던 누적된 불만을 약의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졌다.

법원이 잇따라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온 "가장이 구속되면 가정에 제왕"이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타오르

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검찰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은 이 대법원장의 다른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이 대법원장은 광주고법에서 "사법의 중추기관은 법원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변호사회는 보조기관들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이 언급한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도 법조 3륜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보여 준다. 그는 "변호사에게 돈을 갖다 주는 데 소장 진출 그것 하는데 쓰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대부분 판사실에 가서 판사님 만나서 밥도 좀 먹고, 이야기도 좀 하고, 제발 그래달라고 그래서 돈 주는 것이다"며 판사들이 재판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들을 독려하고 열린 재판을 하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검찰, 변호사에 대한 '비하'로 풀이되면서 대법원을 향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일선 검사·변호사·판사들도 날선 대립=일선 검사들은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 자체보다 발언에 깔린 인식이 너무나 법원 중심적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준선 변호사는 "개별 사건별로 검찰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신빙성이 다르고 판사가 따라야 할 절차가 있는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다고 검사와 변호사를 불신하는 발언을 하느냐. 이는 재판에 관여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주요 발언록

발언장소·일자	발언내용
취임사 (05년 9·26)	•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
법관임명장수어식 (06년 2·20)	•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만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광주고·지법 (06년 9·13)	•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 법조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사법부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비류나
대구고·지법 (06년 9·18)	•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둑다. 영장이 발부둑이면 가정이 구속되고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 구속당하는 사람, 가족의 재임과 같은 상황을 판사들도 인식해야 한다.
대전고·지법 (06년 9·19)	•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 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원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나 •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전체 취지에서 틀리지 않으며 오히려 변형과 검찰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정 격돌에 사법개혁 '흔들' = 이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을 순시하면서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판중심주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취임 이후 줄곧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도 사법개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 대법원장의 직설적인 훈시를 법원 내부에 대한 '경고'로 보면서 사법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사법개혁의 한 축인 검찰과 변호사를 자극함으로써 사법개혁 논의 틀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검사·변호사에 대해 잇따라 비하성 발언을 쏟아냈던 이용훈 대법원장이 21일 오후 퇴근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초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정상명 검찰총장이 21일 굳은 표정으로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불편한 심기 표출할까 오늘 광주 방문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검찰 비하 발언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정상명 검찰총장이 22일 광주를 방문한다.

정 총장의 이날 광주 방문은 일선 지검 초도 순시를 위한 것이지만,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이어서 정 총장의 광주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이 모두 일선 법원의 초도 순시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볼 때 정 총장이 이번 일선 검찰 초도 순시를 통해 어떤 말을 쏟아낼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총장이 이번 광주 방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최근 사기가 저하된 검찰 조직을 추스르기 위한 격려의 말을 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수사 검사와 검찰 직원들을 만나 말문을 열 정 총장이 그동안 갖고 있던 불편한 심기를 어떤 식으로든 표출할 것이라는 게 검찰 측 분위기다.

대법원장에 대한 '유감 표명'은 '대외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절제된 내용이지만,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에게 털어놓는 발언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광주고·지법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목포지청을 방문해, 검찰 간부들과 저녁 만

찬까지 계획돼 있어 이 자리에서는 최근 일련의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은 22일 오전 항공편으로 광주에 도착한 뒤 광주고등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 업무 보고를 받고 법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목포지청을 방문해 업무 현황 보고를 받고, 영암 일출산 관광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검찰 관계자 70여명과 함께 일출산 등반을 할 계획이다.

정 총장의 초도 순시는 지난 5월 대구고·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치 프리즘

한나라-민주 합당설 속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를 두려워서 못한다면 천년을 가도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며, 지향 목표가 같고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해쳐모여식 신당 창당도 마다하지 않겠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중도보수 성향 의원모임인 '국민생각'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지난 20여년동안 대립 전선을 형성해왔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화갑 대표의 한나라당 의원 모임 참석과 발언 내용은 '파격' 그 자체였다.

민주당 대선정국 몸값 높이기 한나라 호남서 지지율 올리기

이날 한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얘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좁게는 '정력 공조', 넓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韓대표 "해쳐모여식 창당"

이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에 민주당이 불참한 데 이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의원, 이명박 전 서울시장 등이 '민주당과의 통합' 주장을 앞다투어 내놓았다. 민주당의 강력한 부인에도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한-민 공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한-민 공조' 논란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대선 구도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패배를 당한 한나라당으로서 호남에서 지지율을 높이는 숙제는 1년 뒤 대선을 앞두고 확보해야 할 안전판이다.

특히 '한-민 공조' 논란은 추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흔들려는 것은 물론, 결과에 따라 복잡한 대권 구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열을 촉진할 수도 있어 그동안 한화갑 대표가 주장해왔던 '창조적 파괴'를 현실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즉 제 3 지대에서 한나라당 이탈 세력, 열린우리당 이탈세력, 민주당 등이 모여 중도 개혁을 내세우는 신당 창당과 대선 주자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 공조'는 태생적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다. 호남과 영남에 각각 기반을 둔 정치집단 간의 인위적인 결합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공산이 높은 데다 정체성과 역사가 다른 정당이 공조와 연대를 통해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당 합당은 이종교배"

벌써 호남지역에서는 '한-민 공조' 논란과 관련,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대선에서의 공조는 한나라당의 생각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유종필 대변인은 "양당의 합당은 이종교배"라며 한나라당과의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절박감서 기인

소수 야당인 민주당에게 '한-민 공조'라는 카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절박감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계개혁의 원심력에 의해 끌려가기 보다는 정국을 주도하면서 민주당의 주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대학교
200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는 2007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모집인원, 접수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입학일, 문의처 등 상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전남대학교 대학원 입학지원팀 (061-270-2111)

www.jnu.ac.kr